

행복한 순창 밀그림 그린다

민선7기 공약사업 6개분야 실행계획 검토... 19일 보고회 예정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군은 황숙주 군수가 약속한 공약사업 6개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검토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군은 6월말에 공약사업 목록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제반여건과 예산확보 가능성, 임기내 실천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황숙주 군수 주재로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이번주 공약사업들에 대한 이행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군은 이후 세부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쳐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하고 9월 중 대 군민 공청회를 통해 이를 알리고 확정할 계획으로, 공약에 대한 군민 이해와 참여폭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농사가 행복한 순창 ▲산업을 활발한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 ▲교육의 일민지 순창 ▲문화가 숨쉬는 순창 ▲복지가 먼지인 순창 등 8개 분야에 유기농업특구 조성, 국도 21호선 방재터널 개량사업, 경천~강천산 탐방로 조성, 중교교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설립 등 45개 사업이 총 망라되어 있다.

본격 추진되면 예산 5,000억원, 관광

객 500만명 시대를 열수 있는 핵심 사업들로 평가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황숙주 군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은 군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별했으며, 이 사업들이 성공해 순창의 100년 희망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행계획 세부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군민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대상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4년연속 A등급(우수) 평가를 받는 등 전국 지자체 공약평가에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아 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의는 지난 16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의회의 의정 전문역량 강화 경주

제8대 전체의원 대상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남원시의회의(의장 윤지홍)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남원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고향기부제'를 첫 제안한 양성민 소장(의정활동연구소)이 나서서 내실있는 제1차 추경안 심의, 주요업무 계획의 면밀한 검토 기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윤지홍 의장은 "제8대 남원시의회

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 전문역량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시의 기능도 충실히 실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의는 앞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유용하고 참신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초빙, 분야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심 민 군수로부터 '민선7기 임실군정보고'와 실과원소별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임실군 리의 관광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 및 '임실군 애항정학회 출연 심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본격적인 무더위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에 이상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폭염정보와 쉼터 등 관련정보를 취약계층에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신 의장은 의원들에게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을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자신으로 삼아줄 것"을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오는 27일까지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영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수영강습을 진행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방학 생활을 유도하기 마련됐다.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실내 수영장에서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주 3회 운영하며 유아반, 초급 초등생반, 중급 초등생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수영법 외에도 구명조끼 착용법, 수상호흡법 등 수상 응급상황 대처능력에 대해 전문수영강사 2명이 체계적으로 지도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수영교실 참여자를 모집 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순창군 실내수영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전화 650-1664 번으로 하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여름방학 수영교실은 아이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 여정 마무리

지난달 23일부터 총 4회 진행... 판소리 공연 체험 등 참여자 대만족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이 지난 14일 류명철 명인과 함께하는 남원농악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을 받으며 시작된 2018 남원문화버스는 남원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미술, 국악, 문학, 농악)에서 저명한 인물들과 함께 '남원의 문화인물 탐방'을 주제로 6월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4회 진행되었다.

6월 23일에는 김병중 화백의 미술 작품 관람, 동양화의 세계, 유년 시절과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6월 30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안숙선 명창과 함께 남원 판소리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판소리 공연 및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7월 7일에는 복효근 시인과 함께 동학과 민복사지에 대한 시 이야기, 시낭송, 삼행시 체험 등이 펼쳐졌으며, 지난 14일(토)에는 남원농악 예능보유자 류명철님과 함께 남원농악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남원문화버스 구석구석'이 지난 14일 류명철 명인과 함께하는 남원농악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문화버스에 참여한 시민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며 "남원농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사물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남원문화도시사업 프로

그램 중 하나인 '문화버스 구석구석'을 통해 남원의 생태, 역사, 문학, 인물 등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보다 흥미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작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모범수렵인 25명 선발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

군은 피해방지단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파종시기부터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년과 달리 빠르게 발생하고 있어, 방지단 운영을 서둘러 결정했다.

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포획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임실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방지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방지단은 경험이 많은 관내 모범수렵인 25명을 선발해서 3개 권역으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시에는 농가의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을 신속하게 현장출동 시켜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비교적 수월한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획활동이 비교적 제한적이긴 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및 유해야생동물 출몰시 즉시 신고하는 등 포획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